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청년 주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6. 내 주는 살아 계시고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명량한 가을볕에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대추가 탐스러운 계절입니다. 추분을 지나며 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만 나돌던 우리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성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얻어지는 생의 보람과 기쁨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삼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호10:12 ..... 인도자

♠ 교 독 문 ..... 5. 시편 13 편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대표기도 ..... I. 박정숙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381. 총성하라 죽도록 ..... 다함께

성경봉독 ..... I. 고후12:7-10 ..... 인도자

II. 딤펢전4:6-16 ..... 최숙화 권사

찬 양 ..... 성가대

말 씬 ..... I. 온전한 약함 ..... 김재흥 목사

II. 예수의 선한 일꾼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03. 가슴마다 파도친다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부끄럽고 나쁜 삶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이제는 우리 가슴에 허전함을 남기는 일을 위해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가리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성심껏 수행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9월 동호회	에베소서 강해(21)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랑!	기도 : 장혜숙 권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이혜명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임정자 권사

<b>9월</b>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권혁순	안정숙	정경례	조항미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인걸	조병주	김성자	허정윤

## 죄에 대하여

압바 안토니오가 압바 피멘에게 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유혹을 예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위업이지요.”

사막 교부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동시에 자신들이 인간임을 기억했다.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정직과 개방을 통해 형성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상 안에서 쇠신되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는 자신들이 과거의 모습 속에 머물러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유혹받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영성이 아니라, 그 길에서 인간성을 지켜주는 그런 영성이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떠나가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신심행위 중에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왜곡시키는 그 무엇이 잠입하리라고 예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즉시 우리의 잘못들이 떠오른다는 사실이 별로 달갑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들을 가엾은 죄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생각을 전해줌으로써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다. 안토니오는 죄에 관해서, 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와 동반할 유혹에 관해서 아주 솔직히 말한다. 그는 유혹에 겁을 먹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맡겼다. 그는 자신의 허물 주위를 맴도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의 죄는 오히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곧장 향하게 하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또한 사랑의 체험은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는 자신의 텅 빈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에 차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맡겼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수도승들이 취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모시키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다.

## 자비에 대하여

압바 궤멘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고 부인하면 그를 직책하지 마시오. 그의 용기를 꺾는 일이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시오, 형제여! 그러나 앞으로는 당신 자신을 돌보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의 영혼이 회개하도록 일깨운 것이라오.”

이 글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수도승 교부들의 자비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영성 지도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진실을 시인하라고 남을 뒤통수치는 대신에, 궤멘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올바르게 서게 한다. 진실되이 꾸짖고 나무람으로써 다른 이를 제압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는 슬프게 떠나갈지도 모른다. 슬픔은 그를 마비시키고 그가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리낌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궤멘은 그가 만난 사람이 아직 자신의 진실과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는 그의 내적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고려한다.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북돋움으로써 그가 자신의 그늘진 부분과 잘못을 대변할 수 있게 돕는다. 다시 일어서도록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와 그의 잘못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비난받고 판단받는 사람은 쉽게 실망에 빠지고 자신을 핑계친다.

압바 궤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막 교부들이 도덕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결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역시 자기네 삶의 불쾌한 부분들과 대면할 용기도 발견한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안젤름 그윈, <<사막을 통한 생명의 길>>

## 선 인 장

사막에서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목마름도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내 푸른 살을  
고통의 가시들로  
축복하신 당신

피 묻은  
인고의 세월  
견딜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그 어느 날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화려한 꽃 한 송이  
피워 물게 하셨습니다 (이해인)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조관행 홍선희 박재실 김용진 박효선  
이봉옥 배삼순 임 영 정경례 무명1

**월정헌금:**

이은자 김창원 정지은 곽권희 최철수 정두리

**감사헌금:**

백묘현 한학수 최복선 문금석 김종문 지명주 김춘려 이상우 이영숙  
윤정덕 김수현 김용진가족 유증희가족 무명2

**생일감사헌금:** 임원민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김 정 섭	홍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미 순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소 순	이 건 화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박 경 원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안 정 숙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문 복 순	김 춘 려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교 회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봉 옥	오 복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최 종 원	이 명 희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이 명 옥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청년주일** :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새벽 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9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동호회** : 오늘 오후에는 동호회 활동으로 모입니다. 특히 생태기행 동호회가 새롭게 선을 보입니다. 오늘은 생태 기행 전문가인 이성욱 선생님이 안내합니다.
4. **세계성찬주일** : 다음 주일(10월 2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전도집회** : 중구용산지방 선교부가 주최하는 전도집회가 9월 28일(수) 저녁부터 30일(금) 저녁까지 만리현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장경동 목사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6.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9월 27일(화) 오후 6시 서대문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회장단 회의는 5시부터입니다.
7. **녹색구매교육** :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최하는 <기독교여성을 위한 녹색구매 교육>이 10월 4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 **결혼** : 백용식 씨와 노미향 씨(노용래집사·차혜심 권사의 외동딸)의 결혼식이 10월 3일(월) 오후 3시 전기공제회관 15층에서 거행됩니다.
9. **신앙실천** : 하루에 세 번 이상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 식당 봉사 : 빌립보 속

\* 헌화 : 김근중 권사 정옥영 집사 (결혼 기념일)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